



농림수산식품부

▶ AI 청정화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2011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시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집중관리 지역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I 청정국 지위(2011. 9. 6일 회복)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한편,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알 전용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과,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사체 발견시 신고, 다리표식끈(Leg Band) 및 인공위성 수신장치(GPS) 부착 철새 이동조사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가 등에 대한 방역의식 고취와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 방역실시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AI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조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대상으로 가축 이외 가축의 생산물 및 기타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함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0월 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구제역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상황 발생시 또는 유사시에는 상황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축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 닭 사육 규모 16% 감소

육계 사육 마리수가 여름철 보양식 특수가 끝나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1일 통계청(청장 우기종)이 발표한 '2011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 사육 마리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난 분기보다 87만2,952마리(16%) 줄어든 448만203마리로 집계됐다.

오리 사육 마리수도 지난 분기 9만4,380마리보

다 2만1,580마리 감소한 7만2,800마리로 조사됐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닭고기 수출증대 '총력'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우리나라 닭고기 및 닭고기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닭고기 제품 위생 검사관리기준규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사전에 수행함으로써 제품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선형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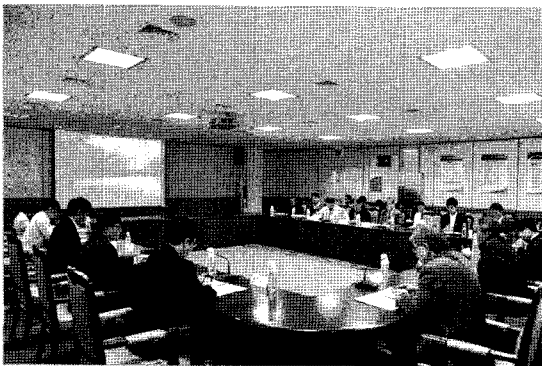
특히, 금년에는 한·EU(유럽연합) FTA 체결에 따라 EU회원국의 축산물에 국내로 수입된다는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제품을 EU 회원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전략에 따라 EU회원국(27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닭고기 제품 위생, 검역 규정들을 수집하기 위해 유럽연합본부 소비자보호국(EU DG SANCO) 등을 방문하여 관계관과 닭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및 관련 규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향후 닭고기 제품 수출의 제도적 관리 사항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며, 조사 수집된 유럽연합의 닭고기 제품 위생 관련 규정 자료들을 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 닭고기 수출관련 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EU 회원국 닭고기 수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닭고기 제품의 수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산·학·관·연이 연계한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 건국대 교수)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사

업단과 검역검사본부가 협력하여 미농무부 식품 안전검역청(FSIS)의 우리나라의 닭고기 제품 생산 공정 및 정부의 위생관리 현황에 대한 동등성 평가 실사 대응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닭고기 제품 對미 수출문이 열리는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닭고기 제품 미국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며, 사업단을 중심으로 닭고기 제품 수출 지역 다변화 및 5,000만 달러 수출 달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가금질병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가금 질병에 대한 국내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최근 축산 관련 단체 및 농가에 의해 제기되는 현장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검역검사본부(안양시 소재)에서 개최되었으며, 가금 사육농가, 동물병원, 학계

및 축산단체 등 외부전문가 11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오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대책과 닭 저병원성 AI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외에도 현장에 문제시 되고 있는 닭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기관지염, 콕시듐증, 닭 전염성빈혈 등 다양한 현장 애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방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최근 닭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상황 분석 미흡과 현장에서 다른 호흡기질병으로 오진되는 사례가 많다는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조류질병과가 주관하는 가금질병연구회 추계학술세미나에 '닭 뉴모바이러스 혈청모니터링(2006-2010년) 분석결과'를 주제로 선정하여 현장 양계수의 사와 농가들에게 닭 뉴모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사례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사료첨가용 항생물질 사용이 금지되면서 가금 농장에서 다양한 병원균들의 기회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괴사성 장염 등 세균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에서는 2012년 연구사업에 국내 괴사성 장염 예방법 관련 연구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가금질병 전문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른 현장애로 기술 과제들은 검토 후 국가개발연구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 과 업무협약(MOU) 체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0월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농·축·수산물 위생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술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 ▲둘째,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원산지 인증 관리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및 공동연구 수행, ▲셋째,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위해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한 유기적 협조, ▲넷째, 양 기관에서 보유한 소장도서 및 자료, 시험설비의 이용 등이 있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농촌진흥청

▶▶ '재래닭 유전체 정보교류와 유전적 특성'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지난 10월 18일~19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제축산연구소(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에티오피아 소재) 동물유전체정보 연구실장인 Tadelle Dessie 박사를 초청해 '재래닭의 유전체 정보와 유전적 특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adelle Dessie 박사는 세미나에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된 DAGRIS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DAGRIS 프로그램(<http://dagris.ilri.cgiar.org>)은 여러 나라의 재래 품종에 대한 품종특성, 분포, 번식상태, 경제가치, 생산 시스템, 지역 정보, 경제형질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이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해 활용하면, 재래가축 유전자원에 대한 품종별 형질 요약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지역별 닭의 유전변이와 진화론적 선발신호 분석, 유연관계 구명과 형질연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축적과 공유는 국가 유전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각 특성에 맞는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제축산연구소와 국제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아시아·아프리카 닭의 비교 유전체 연구를 통한 형질연관성 유전자 구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제축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한국 재래가축간의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를 비교 분석하면, 재래가축의 질병 저항성, 환경적응성 등 유전적 특성을 구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개량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가축진료 및 축사 소독 등 현장기술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0월 5일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안성시 미양면 보촌마을을 찾아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적 사양관리 지도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자매결연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현장기술지원 활동을 펼쳤던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에도 과학원 소속 수의사 5명 등 20여명이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방제차량을 이용한 축사 소독지원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의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2대 원장 이동필 박사 취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대 이동필(李桐弼) 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0월 10일 농촌경제연구원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동필 신임원장은 취임식에서 “전임 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원이 기틀을 닦고 연구 환경이 개선되었고, 선배동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정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저를 키워 준 연구원의 은혜를 갚는 길은 신명 바쳐 원장직을 수행하는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의 임무는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농정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이 위기 속에서 발전하려면 농정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체성 회복과 위상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연구원이 한국농업과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 가족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글로벌 기술경쟁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개도국과 기술교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오는 11월 11일까지 몽골과 필리핀 현지시찰을 실시한다.

품질평가원은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품질평가 등 축산물유통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방문국가의 축산현황 등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방문국가의 정부관계자, 기관단체 등과의 세미나

를 개최하는 등 기술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몽골은 식량경공업부, Just Agro 육가공장, KOICA 몽골 해외사무소, DMF도축장 등을 6일간(10. 31~11. 5), 필리핀은 KOICA 필리핀 해외사무소, 축산국, 카라바오연구소(PCC), 가축사육장 등을 5일(11. 7~11) 동안 방문한다.

▶▶ '축산물품질평가 자문위원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0월 6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4기 축산물품질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업의 주요현안과 신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생산, 유통, 소비 각 부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축산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최형규 원장은 기관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HPAI · 구제역 현장방역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구제역의 재발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상황실 운영을 연장하고 능동적인 농장예찰, 초동방역팀 CPX 훈련 등 현장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배상호 본부장은 지난 10월 6일 '구제역 · HPAI 상황실' 현판식에서 "9월부터 북방철새들의 국내로 이동 유입되기 때문에 HPAI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우려되는 만큼 직원들의 철저한 농장예찰과 농가 방역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축산농가는 농장의 차단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 발생국가 여행 자제 및 외국인근로자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구제역 · HPAI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1동 동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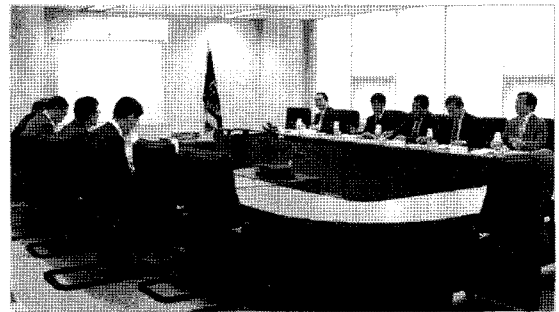


방역본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일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으며, 호계종합시장은 위생적인 식자재와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사로 천안공장(배합사료), 영광호농장(한우), 영농조합법인 운도축산(돼지), 포프리팜(산란계), 농업회사법인(주)삼화원종 갈산농장(육계)이다.

▶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0월 5일 기준원 회의실에서 축산물HACCP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김승환 과장과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이희재 본부장, 건국대 김진석 교수 등 총 8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기준원의 현재 업무추진실적 및 기준원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한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하반기 축산물HACCP 운영 우수작업장 시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10월 4일 대강당에서 2011년도 하반기 축산물HACCP 운영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된 업체(농장)에 대하여 시상식을 개최했다.

축산물HACCP 운영 우수작업장 선발은 축산물 HACCP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축산물 HACCP 작업장의 운용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축산관련 전문기관에 평가 기준 개발과 외부검증을 의뢰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5개 업체(농장)은 (주)우성

주요 내용으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협의된 결과를 중장기 경영 목표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창의와 소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 '토종닭 산업화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 공동 주최로 열린 'FTA 대응 토종닭 종자개발 및 산업화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는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성료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 토종닭의 새로운 문화창출(개그맨 고명환), ▲ 재래닭 유전자원 현황과 유전학적 위치(김재환 박사), ▲ 품종 등록을 위한 육종 및 제도 개선방안(손시환 교수), ▲ 농촌진흥청 '우리맛닭' 개발 및 산업화(강보석 박사), ▲ 한협 토종닭 현황과 발전방안(박범진 대표), ▲ 토종닭 산업발전을 위한 SWOT 분석(위계욱 기자), ▲ 토

종닭 유통 형태 및 신제품 개발 사례(조현성 이사), ▲ 토종닭 산업 육성 실천 전략(문정진 부회장)의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토종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발표자들은 특히 2012년부터 예고된 종자전쟁에 대비해 국가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 10월 14일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손숙미 국회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전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꾸준히 영양의 날 대국민 영양교육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2007년 '소금섭취 줄이기', 2008년 '칼로리 바로알기', 2009년 '채소·과일 섭취하기', 2010년 '아침식사하기'에 이어 올해에는 '균형잡힌 식사로 건강체중을!'을 주제로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및 어르신의 영양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른 식생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계측을 통한 비만도 판정, 식습관 진단 및 전문영양사의 영양상담, 이벤트를 통한 영양교육도 이루어졌다. 